

新 哲學의 指導 原理

辨證法的 世界の 彼岸 ④

金基錫

우리들은 여기에서 現代의 思惟가 만나는 한 개의 크다란 『아포리아』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움죽인다』. 『久遠한 眞理란 업다』 이것은 분명히 存在
및 事實에 대한 가장 根源的인 理解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움죽이
고 있는 根本現實, 또 久遠한 眞理가 업다는 基礎直觀. 이것을 우리들은 어
떠케 反省, 또 解明해야 하겠습니까.

觀念論은 아시다시피 久遠한 實在에 대한 憧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까
닭으로 해서 觀念論은 眞理란 久遠한 것이라고 욕이면서 久遠한 眞理의 否
定은 도리어 그 자신 久遠한 眞理의 肯定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대하여 現實
主義는 어떠한 생각하겠습니까. 久遠한 眞理가 업다는 것이 그 자신 久遠한
眞理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한 개의 지극히 抽象的인 眞理는 아무런 具
體的 內容도 가지지 못한다. 이따므로 久遠한 眞理의 否定이 곧 그 肯定이
된다고 하여 도리어 眞理의 久遠性을 主張하려는 것은 한갓 型式의 論理를
일삼는 觀念論의 空虛한 觀想에 지나지 않는다. - 이것이 現實主義, 觀念論
에 대한 抗辯이겠습니까. 모두를 運動과 發展에 잇서서 보는 것이 現實主義
의 根本 立場이 아닙니까.

現實主義는 生成의 世界에 한 세찬 志向에 몰리면서 헛된 觀念構成에 떠
러질 것이 아니고, 自然과 歷史를 어디까지던지 그 現實過程에 잇서서 보아
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眞理는 具體的이다』. 『內容업는 思想은 空虛이다』
하기야 아무리 眞理기로서니 內實이 업는 한 조각 形式인 다음에야 해서 무
엇습니까. 眞理가 具體的이라는 것은 분명히 眞理에대한 한 개의 아름다운
理解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眞理가 具體的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眞理는 말하자면 具體的 抽象的인 것이 아니겠습니
까. 더 나아가 본대 具體, 卽 抽象 抽象, 卽 具體로까지 생각할 것이 아니겠
습니까. 現實主義는 모두를 運動에 잇서서 보자고합니다. 그러나 世界가 단

순한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運動을 그 속에 안은채 훨씬 넓은 存在의 世界, 限定의 世界, 無의 世界인 것을 어떻게합니까. 現實主義가 抽象的이라고 해야 물리치는 觀念, 空虛하다고 해야 도라 보지 않는 無, 가튼 것이 단순한 抽象, 단순한 空虛가 아닌 것을 어떻게합니까.

모두가 움죽인다. 抽象한 眞理란 업다. 이것은 본대 現實主義의 根本 立場을 構成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現實主義가 이 한 개의 立場에 있어서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마는 그 자신의 立場을 說明하게는 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立場에 서서 實在나 現實에 대한 자신의 見解를 表明은 하지마는, 자기가 그곳에 서 잇는 자기 스스로의 立場이 어떤 것인지를 反省, 超越하는 자리에 나서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모두를 運動性, 具體性에 잇서서 眞보는 運動의 論理로서의 現實主義의 根本 限界가 잇지 안겠습니까.

어떤 한 개의 立場은 본대 그 자신의 根本見解 또는 基礎前提란 것을 가 집니다. 그 자신의 立場을 說明하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立場, 그 自體를 한 개의 問題로 提出할 수 업습니다. 觀念論은 觀念論, 그 자신을 解明할 수는 업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觀念論을 批判하기 위하여 다른 한 개의 立場인 現實主義에로 移行하여야 하지 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다시 現實主義의 根本 立場을 問題로 하는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모두가 움죽인다. 久遠한 眞理란 업다. 이것은 진실로 現實主義의 根源의 前提입니다. 이 모두가 움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久遠한 眞理가 업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두가 움죽이고 잇다는 現實을 다시 보고 久遠한 眞理가 업다는 見解를 다시 생각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은 암만해도 現實主義의 立場을 넘어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칸트를 理解하는 일은 칸트를 超越하는 일이다.』 이 말은 『칸트』 超越만이 『칸트』에 대한 理解를 가져온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우리들은 부질업시한가 입으로만 批判이니 超越이니 하고 덤비면서 실상 심한 歪曲, 그릇된 解釋에 떨어지는 일을 삼가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現實主義의 理解는 정히 바른 意味의 現實主義의 領域에서만 構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現實主義가 아니고 現實主義를 그 속에 싸는 한 개의 새로운 立場에로 나아가야합니다. 말하자면 요셋말로 바꾸어 現實主義의 止揚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現實主義를 넘어서는다는 그것을어떤 노픈 자리 에도 止揚시킨다는 한 개의 새로운 立場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實在와 現實은 그 具體性에 잇서서 解明 한다고 이르는 辨證法 사람들은 辨證法을 가리쳐 우리들이 거기에 옮겨 가야 하는 가장 根源的인 立場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막 告白하기로 하거니와 우리들이 아페서 『運動의 論理』니 現實主義니

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 이 辨證法을 意味하는 적이었습니디. 辨證法. 사람들은 이 運動의 論理, 生成의 論理로서의 辨證法을 가장 直接的인 眞理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물론 辨證法이 過去의 形式論理에 견주어 한 개의 具體的 思惟가 된다는 것을 否認하지는 안습니디.

그러나 眞理란 辨證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辨證法을 그 속에 가지는 훨씬 넓은 것이 아니겠습니디. 辨證法이 眞理이고 아닌것은 實在의 世界가 辨證法的 運動을 지니고 안지는데서뿐 決定됩니다. 그런데 실상 眞實한 意味의 實在의 世界는 단순히 한 개의 조그만 辨證法的 世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辨證法的 世界를 그 속에 가진, 말하자면 超 辨證法的 世界, 包 辨證法的 世界가 아니겠습니디. 眞理 는 辨證法 보다 넓은 것이 되어야합니다. 實在의 世界는 辨證法的 世界보다 넓고 키픈 것이 되어야합니다. 哲學은 現實을 理解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現實이란 무엇이겠습니디. 우리들은 먼저 存在가 있음을 압니다. 存在가 時間 속에서 부단히 움죽이고 있음을 압니다. 自然과 歷史와 文化, 이것들은 한 가지로 어느 意味의 存在가 아니겠습니디. 우리들은 過去의 觀念論이나 現實主義와 함께 存在의 背後에 어떤 絶對的인 實在를 限定 해서는 안됩니다. 存在는 精神이나 物質이 거기에서 자기를 抽象시키는 現實的 實體가 되기 때문입니디.